

## 전시를 준비하며

### 김인선

신건우 작가와 조혜진 작가의 2인전이 성사된 이후 전시 직전까지 가장 많은 질문은 “왜?” 였다. 이 두 작가의 작업에는 함께 전시로 묶일 만한 공통점이 없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이에 대한 의구심, 의아함은 제삼자뿐 아니라 작가 당사자들에게도 짙었다. 이 두 작가는 제삼자 만큼이나 혼란스러워 했고 이 전시 결과에 대해 반신반의했다. 신건우 작가는 사실적 묘사가 뛰어나며 재료나 제작 과정, 그리고 주제의 구현 방법 등에서 소위 전통 조각 형식을 보여주고 있는 작가이다. 조혜진 작가는 신건우 작가의 이 모든 방법론과 첨예하게 극단적인 지점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겨지는 작가이다. 일상에 존재하는 사물, 자신을 둘러싼 이미지에서 소재를 찾고, 이를 구현하는 과정은 전통 조각 공부를 해본 사람에게는 전혀 생소할 법한 방법론을 구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작업이 한 공간 안에서 예기치 못한 지점을 만들어낼 것만 같았다. 이유는 명확하다. 너무 달랐기 때문이었다. 즉 서로 비슷한 성격을 가지든 관심사가 비슷하든 그것은 ‘비슷’할 뿐이지 하나의 테두리 안에서 반드시 최상의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님을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낯설고 생소한 것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 대신 신건우 작가에게는 그가 학생 시절에 만들었던 초기의 감각을 보여주기를 요구하였다. 그가 부피와 덩어리를 구현하는데 뛰어나다는 점을 드러내고자 했다. 최근 신건우 작가가 보여줘 왔던, 내러티브가 강력하여 관객이 작가가 가진 고유의 공간과 부피의 감각을 순수하게 체득하기 힘들었다는 것을 이번 기회에 보여주고자 했다. 조혜진 작가는 자신의 조각을 보여주면 되는 것이었다. 그는 개인적 내러티브를 완벽하게 삭제한, 조형 요소만 남겨진 선과 면으로 전시 공간을 구성하였다.

공간 크기에 유연하게 맞아 들어가며 벽면을 점령한 조혜진 작가의 선들은 신건우 작가의 강렬한 입체와 색, 스토리에 전혀 잠식되지 않았다. 이 둘은 자신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낸 동시에 상호 반응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냈다. 서로 다름을 염두에 두었으나 그리 다르지 않은 지점이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었다. 신건우와 조혜진에게 각자 두루뭉술하고 모호한 숫자를 선택하도록 하여 전시의 제목으로 제시하였다. 관객은 이를 해석하는 데에 그리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다. 이를 미리 예측해봤자 이 두 사람의 조화로움을 찾아내기는 점점 더 어려워질 뿐이니까.